

보도시점 2026. 8. 21.(금) 09:00
< 8.21.(금) 석간 >

배포

2026. 8. 20.(목)

상반기 對中 소비재 수출 우상향 전환, 연말까지 이어간다...“V자 반등 달성”

- 산업부 장관 주재 ‘對中 소비재 수출 점검회의’ 개최(8.21)
- K-푸드·패션 등 상반기 수출 증가세 전환, K-뷰티도 회복 흐름
- 마케팅·유통·인증·비즈니스 환경 등 중국 권역별 특화 진출 전방위 지원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의 훈풍을 타고 K-소비재의 중국 진출 확대에 속도를 낸다. 상반기 대중 소비재 수출의 반등 기조를 연말까지 이어가 올해를 ‘대중 수출 V자 반등의 해’로 삼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8.21(금) 장관 주재로 주중 공관 상무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 지역 무역관장 등과 ‘대중 소비재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수출 실적 점검과 하반기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진짜 성과” 창출을 위한 성과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중국 소비재 시장은 50조 위안(1경원 이상) 규모의 거대 시장이지만 우리 소비재 수출은 2021년 93억 달러로 정점을 달성한 후 감소세가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범부처 수출확대방안’ 등을 통해 올해 초 정상외교 이후로 활기를 띠는 한중 관계를 활용, ▲양국 중앙·지방 정부 교류 강화, ▲중국 內 무역관의 인증·유통망 지원 거점화, ▲내륙도시 진출 및 新 소비층(Z세대, 실버세대 등)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대중 소비재 수출은 34.4억불(전년동기比 +8.7%)로 반등에 성공했다. 품목별로는 패션의류(+33.4%), 식품(+17.7%)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다. 화장품도 6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23.8%)로 전환하는 등 주요 소비재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로도 일부 권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부후베이성(+378%), 동북랴오닝성(+69%), 화남하이난성(+62%), 화북베이징시(+46%), 서부섬서성(+33%), 화둥안후이성(+15%) 등에서 큰 폭의 호조세가 확인됐다**.

* 품목별 수출 통계 : 韓 관세청 / ** 중국 內 지역별 수출 통계 : 中 해관총서

정부는 올해 ‘대중 소비재 수출 V자 반등’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중국 내 지역별 특화 진출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틱톡(도우인), 샤오홍슈 등 플랫폼을 통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등 현지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마케팅을 전개하고, 주요 도시 내 K-소비재 팝업스토어를 설치해 오프라인 체험 기회를 넓힌다. ‘1무역관-1유통망 사업’을 통해 징둥, 알리바바 등 대형 유통망뿐만 아니라 신규 로컬 유통망도 10개 개척하고, 청두, 시안 등 내륙 지역에 ‘K-소비재 물류데스크’를 신설해 연안에서 내륙까지 이어지는 물류 지원시스템도 마련한다. 아울러, 양국 정부 및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수출 규제 등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산둥, 장쑤, 광둥 등 주요 중국 지방 정부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위축됐던 대중 소비재 수출이 민관의 일치된 노력으로 최근 의미 있는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권역별 수출 상황과 평가를 토대로 하반기 기업 지원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연말까지 수출 확대 모멘텀을 이어갈 것을 각 무역관장들에게 당부했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020)
		담당자	사무관	전기성 (044-203-4021)
		담당자	사무관	오정훈 (044-203-4015)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	책임자	과 장	김덕구 (044-203-5690)
		담당자	사무관	안호연 (044-203-5677)